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통합 회담제안...법사위 법안상정 압박

"선거 유불리 따져 반대할 일 아냐...국힘, 먼저 주장해놓고 국민 우롱"

국힘, 아직 무응답...與, 오늘 법사위 거쳐 24일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양당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상정키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동리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

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당 충남·대전 통합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니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알아서 정하면 된다"고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구리 심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충남·대전, 대전·충남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장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세를 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회담 제안과는 별개로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충남·대전 지역을 비롯해 대구·경북, 전

남·광주 지역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절연'을 놓고 내용이 깊어가는 국민의힘과 대비를 이루도록 질서 있는 조기 공천으로 '준비된 집권여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면접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울산, 세종 등에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면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엄격하게 관리하

겠다.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3가지 원칙 속에서 공관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국민정당인 민주당이 당헌, 당규, 경선 규칙을 통해 세세하게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정비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 토대 위에서 매우 적합한 후보를 골라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지선 100일을 앞둔 시점에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공천 면접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유능한 인사를 발굴하고 그런 분이 기회를 잡도록 공천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면접 첫 순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었다.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민주당의 '탈환 0순위' 지역이기도 하다.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1대 1로 진행된 면접에서 공관위원들은 '송곳' 질문으로 후보 검증에 나섰다.

심귀영 기자

우리금융캐피탈, 창립32주년 기부금·전기차 전달

임직원·회사가 함께 마련한 1천만원과 친환경 전기차 지원...포용금융·ESG 실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우리금융캐피탈(대표이사 기동호)은 창립 32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우리금융캐피탈 본사에서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 1,000만원과 친환경 전기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주현중 우리금융캐피탈 전무와 김은주 하성만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우리금융캐피탈 프로그래머 스포츠단 '우리WON위비스' 소속 스포츠 피아니스트가 참석했다.

기부금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급여 끝낸 모금과 회사 매칭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이동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차도 함께 지원했다. 이번 기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용 금융 실천과 환경을 고려한 ESG 경영 의지를 담았다.

또한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일터 '굿윌스토어'에도 임직원 기증 물품이 전달됐으며, 우리WON위비스 선수단도 물품 기부에 참여한 장애인 자립 지원에 힘을 보탤다.

로 참여한 급여 끝낸 모금과 회사 매칭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이동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차도 함께 지원했다. 이번 기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용 금융 실천과 환경을 고려한 ESG 경영 의지를 담았다.

또한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일터 '굿윌스토어'에도 임직원 기증 물품이 전달됐으며, 우리WON위비스 선수단도 물품 기부에 참여한 장애인 자립 지원에 힘을 보탤다.

이승원 기자

CJ제일제당, 전분당 가격 인하한다... "물가 안정에 동참"

1월 업소용 전분당 가격 3~5% 내린데 이어, 소비자용 제품 최대 5% 인하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업소용(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B2C) 전분당 제품의 가격을 최대 5%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CJ제일제당측은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취

지"라며, "고객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덕강일·내곡 상가 19호 선착순 분양

23일 분양 공고... '26년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 선착순 계약

공인중개사 알선 시 중개 보수 지원(분양 금액의 0.9%, 부가가치세 별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 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

SH는 23일 선착순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시간 제외)이며, 계약 절차 및 세부 일정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착순 분양은 공실 해소 및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 및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6,79,11,13,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강동구 혁신산업·상업복합단지)가 위치해 향후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버스 정류장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1억7,613만 원에서 최고 5억

161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0~50% 인하해 책정됐다.

내곡 도시형생활주택(서초 선포레)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된 1층 상가로, 내곡지구 4,600여 세대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신분당선 정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이내에 위치한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5억 6,056만 원에서 최고 7억4,15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5% 인하했다.

신청 자격 및 상가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귀영 기자

NH농협은행, 토지·농지 전문 서비스 '내일의 땅' 개편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인 '내일의 땅'개편을 기념해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땅보고 행운의 2026' 도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일의 땅'은 부동산 중 토지와 농지를 전문으로 매물 조회, 실거래가 조회, 농지적합성, 재배 가능 작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고객의 보유 토지와 관심조건에 따라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기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토지 10억원 이상인 고객은 농협은행의 부동산전문위원과 토지 전문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26명에 스타벅사

(2명) △올리브영 3만원권(2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2,000명)를 증정한다. 기존에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토지와 농지 정보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올원뱅크나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물 데이터 상호교환 및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금융서비스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승원 기자

롯데월드푸드, 월드콘 신제품 3종 출시하고 북중미 여행권 쏜다

'프리미엄 월드콘 애플파이', '프리미엄 월드콘 초코브라우니', '월드콘 요거트' 3종 출시

월드콘 구매 고객 대상 북중미 여행 패키지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 전개

롯데월드푸드는 국내 1위 아이스크림 브랜드 '월드콘'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축구 팬들의 열기를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스포츠와 함께 성장해온 월드콘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월드콘은 추첨을 통해 총 10명의 소비자를 선발, 오는 6월 축구 열기로 가득 차 북중미 현지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당첨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등 일체를 지원한다.

참여 방식은 간단하다. 5월 6일까지 신제품을 비롯한 월드콘을 구매한 후, 뚜껑 안쪽에 새겨진 행운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월드콘 패키지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하고, 행운번호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개인 응모자 7명, 단체 응모자 3명 등 총 10명을 추첨하며, 당첨자는 5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 여행권에 당첨되지

않은 참여자 중 추가로 5천명을 추첨해 월드콘 기프트콘도 증정한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월드콘은 '프리미엄 월드콘 라인인 ▲프리미엄 월드콘 애플파이' ▲프리미엄 월드콘 초코브라우니' 2종과, 저당 ▲월드콘 요거트' 1종 등 총 3종이다.

프리미엄 월드콘은 고급 디저트를 표방하는 신규 라인이다. 월드콘에 베이커리 디저트의 특징을 적용해 아이스크림 믹스와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진 풍부한 맛과 식감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월드콘 애플파이는 사과 시럽을 블렌딩해 상큼함을 주는 아이스크림 믹스와, 그 위에 더해져 고소한 톱핑 쿠키 및 사과 시럽 톱핑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

이다. 아이스크림 믹스 속에는 사과 다이스가 들어있어 먹는 내내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월드콘 초코브라우니는 아이스크림 믹스와 다크초코 시럽이 블렌딩돼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블랙 쿠키와 초코 시럽 톱핑으로 식감과 깊이를 더했으며, 아이스크림 믹스 속에는 브라우니가 들어있어 쫄쫄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다.

저당 라인으로 출시된 월드콘 요거트는 부드러운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상큼한 블루베리 시럽을 첨가한 제품이다. 당을 동급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콘 상위 3개 평균 대비 84.0% 저감해 당류 섭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신제품 3종은 전국의 할인마트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 오프라인 채널과 이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KB국민카드, 러너 특화 'KB 마라톤 카드' 출시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러너를 위한 특화 카드인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러닝 인구 증가와 관련 소비 확산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러너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업종과 편의점, 병원·약국, OTT 등 생활 밀착 영역은 물론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의 제휴 혜택까지 담았다.

'KB 마라톤 카드'는 월 최대 5만5천원, 연 최대 66만원 수준의 러너를 위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으로 설계했다. 러너를 앱 내 티켓·스토어 이용 시 2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1만원, 8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1만5천원 할인된다.

스포츠 업종 이용 시 5% 할인을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최대 1



만원, 80만원 이상 최대 1만5천원 제공한다. 편의점 업종은 5% 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최대 2천원, 80만원 이상 5천원을 제공한다. 병원·약국 업종도 5% 할인을 제공하며,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최대 5천원, 80만원 이상 1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OTT 정기결제(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디즈니플러스) 이용 시 30% 할인을 적용해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5천원, 80만원 이상 최대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3월 31일까지 마라톤 대회 선등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B 마라톤 카드'를 발급받고 프로모션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마라톤대회 티켓 별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3월 31일까지 최근 6개월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KB 마라톤 카드'를 발급받고 1건 이상 이용할 경우 연회비 10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승원 기자